

불교창업벤처 '무아'의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담은 노트북을 보며 즐겁게 토론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보람, 전영우, 김동훈, 박찬현, 김아나 씨.

# '불교'야 놀자… 청년 '불교덕후' 무아지경

새로운 콘텐츠의 시대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온라인 매체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아우른다. 이런 맥락에서 수천 년 역사를 지닌 불교야말로 최고의 문화콘텐츠로 꼽힌다. 과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심산유곡 절에서, 스님들을 만나야 접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핸드폰,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불교 경전은 물론 사찰 설화, 고승들의 수행담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영화, 출판, 모바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선 타종교에 비하면 불교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시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불교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너무나 좋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에 못지 않게 활동하는 노령 불자들, 이들의 활동을 전한다.

〈편집자 주〉



## 불교창업벤처 '무아'

젊은이들의 '불교 가지고 놀기'가 심상치 않다. 바로 '젊은 불교콘텐츠를 만드는 청년벤처, 무아'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시 중구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는 창업 동아리들이 모여 있다. 그 중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쌓여 있는 곳이 무아의 보금자리다.

'무아'는 6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만들었다. 무아는 영상의 박찬현, 디자인의 김보람, 마케팅의 전영우, 김동훈, 기획의 김민석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콘텐츠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제각각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궁금해졌다. 공동창업자 김아나 씨(24)는 무아 결성 계기를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재학 중 2년 간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어린이법회 교육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때 불교계에는 교육콘텐츠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교구재'를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고 학교 친구들과 지난해 12월 무아를 창업했습니다. 동국대 창업휴학제도의 도움을 받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전영우 씨(26)는 "법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교구의 인기가 많은 것에 착안해 사경 · 사불 스크래치 키트를 만들었다. 검은 먹지에 선을 따라 그으면 경구나 불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글반야심경과 불화를 스크래치 기법으로 따라 그릴 수 있게 한 '마인드래치'는 구매욕을 자극했다. '지름신'을 불러일으키는 불교 콘텐츠 용품들을 보고 있자니 이들의 성공이 눈앞에 그려졌다. 이들의 발걸음은 교구재 제작에만 머물지 않았다. '무아'는 유튜브에 건봉사 템플스테이 체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영상제작에도 나섰다.

"산짐승이 출몰할 수 있으니 해가 진 다음에는 숙소에서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죽지는 않음'이란 자막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템플스테이 내레이션은 인기였다. 이 영상제작은 박찬현 씨(22)가 담당했다. 청소년영화제서 수상하기도 한 박 씨는 한국화를 전공했음에도 자신의 재능을 뽐냈다.

**불교 교구재 제작 목적, 지난해 12월 창업**
**영상도 제작… 캐릭터 상품 출시 '눈길'**
**'yes! 서울 크라우드 펀딩 대회'서 우승도**

"불교 대표 콘텐츠가 템플스테이잖아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템플스테이'를 검색하면 종단이나 정부서 배포하는 재미없는 홍보영상만 있더라구요. 고리타분한 영상에서 벗어나 재미가 있는 영상이 없을까 고민했죠. 요즘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처럼 예능같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영우 씨는 "영상을 통해 무아를 알리면 어린이용 교구나 가방, 필통 등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홍보되리라 생각했다"며 "템플스테이 영상 중간에 제작한 상품들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런 새내기 벤처사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팀원들은 불교계에 현대적 감각을 펼치는데 낯설음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사실 처음엔 우려도 많았어요. 저희 멋대로 콘텐츠를 만들면 스님들이 싫어할 거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힘든 삶에 애정을 품을 수 있는 마음수행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김아나 씨는 사회를 위로하고 힐링하는 큰 목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무아는 본격적인 도전의 여정에 나선다. 9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yes! 서울 크라우드펀딩 대회'서 우승을 한 이후 10월부터 교구재 제작을 위한 크라우딩 펀딩에 들어간 상태다. 제작된 교구재는 네이버 스토어 팜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11월에는 8박 10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서 열리는 '해커톤 대회'서 '무아'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해커톤 대회는 순수한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핵(Hack)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종의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다.

"'불교'를 내세웠기에 다른 팀을 제치고 뽑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한국불교의 현대화에 집중할 겁니다. '불교'라는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도전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보다는 패기와 기대감이 넘치는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뛴다. 불교에 무아지경으로 몰입한 젊은이들의 다음 행보가 무척 기대된다. **노덕현 · 이승희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
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사부대중일동

부설 사회복지법인수덕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 수덕사노인요양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 불교대학 승가대학
wwww.sudeoksa.com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전화 041)330-7700 | 팩스 041)330-7702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
대한불교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